

# Part 01 규원가 (허난설헌)

<엇그제 저멋더니 허마 어이 다 늘거니.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

늘거야 서른 말술 허자니 목이 멘다.> 늘어버린 자신의 신체에 대한 한탄

앞으로 이어질 내용 암시 (화자의 현재 처지)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 허야 이내 몸 길러 낼 제

부모가 낳아기름

시적화자

<공후 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 허더니.>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 (이상적 소망)

군자(좋은 인품을 지닌 자)의 아내 (현실적 소망)

->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의 아내는 아니어도, 훌륭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를 바랐던 화자의 소망이 나타남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 잘못된 결혼에 대한 운명-숙명적 태도

불교적-유희론적 가치관

중국의 전설을 인용함

장안 유희(長安遊俠) 경박자를 썬근치 만나 잇서, 무조건적 순종x, 임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태도

당시(當時)의 용심(用心) 허기 살어름 디디는 듯,

(시집 길) 당시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오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질로 이니,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천생여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 기약(百年期約) 허앗더니,

모습, 언어의 역사성.

평생을 사랑하기로 약속함

의미축소의 사례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 허야,

세월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비유함

설빈 화안(雪鬢花顏)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구나.>

화자의 과거 모습

화자의 현재 모습 (VS 설빈화안)

->세월의 빠른 흐름에 대한 무상감을 표현함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필소냐.

스스로의 물골에 대한 자조적 태도

스스로 참괴(慚愧) 허니 누구를 원망(怨望) 허리.> 체념적-자탄적 태도

원망할 수 없음 (설의적 태도)

기 | 세월의 덧없음과 늙은 자신의 모습 한탄

〈현대어 풀이〉

옛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늙어 버렸는가?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도 소용없다.  
늙어서 서러운 사연을 말하자니 목이 멘다.  
부모님께서 낳아 기르며 몹시 고생하여 이 몸 길러 내실 때,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은 바라지 못할지라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랐더니,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  
장안의 호탕하면서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있어,  
(시집 갈) 당시에 마음 쓰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고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과 이 모습으로 평생을 약속하였더니,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함이 많아서,  
봄바람 가을 물이 벼들의 울에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입게도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어느 임이 나를 사랑할 것이냐?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있어,

백마 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 방탕하게 생활하는 입을 표현하면서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제시함  
좋은 말과 좋은 채찍 -> 호사스러운 행장

원근(遠近)을 모르거나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행방을 알 길 없는 임에 대한 원망

인연(因緣)을 갖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소냐.  
임과의 인연이 끊으려고 하면서도 임을 그리워하는 이중적인 모습  
얼골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두 새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흐다.

- 1) 화자의 심정을 숫자를 활용해 표현함.
- 2)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
- 3) 외로운 처지로 인한 괴로움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띄여 진고.

매화가 지나감->1년이 지남 -> 남편이 집을 나간지 여러해가 되었음

대구법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섯거 치고, =각면적 상관물

┌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비는 므스 일고.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는 표현 자신의 처지가 괴로워, 자연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음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계절적 배경 귀뚜라미, 가을(계절감) 상징, 감정이입물, 감정이입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 계절의 변화에 따른 그리움 표현  
탄식(자탄적 태도)

승 | **임에 대한 원망과 애달픈 심정**

〈현대어 풀이〉

삼삼오오 다니는 기생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

호사로운 차림을 하고 어디어디 머물러 노는고?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모르는데

(임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으랴?

(걸으려는) 인연을 끊으려고 한들 (임에 대한) 생각까지 없을 것인가?

(남편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이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열두 때 길기도 길어 서른 날이 지루하다.

규방 앞에 심은 매화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겨울밤 차고 찬 때 자국눈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굶은비는 무슨 일이고?

봄날 온갖 꽃 피고 버들잎이 돌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 달이 방에 들이비추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혜니 이리혀여 어이혀리.

청등(靑燈)을 돌라 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츠 섯거 타니,  
한과 서러움을 스스로 달래고자 함

<소상 야우(瀟湘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중국 고사 인용. 녹기금 소리를 비유하는 표현(1)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혼합된 표현 (1)

화자의 구슬프고 처량한 심정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중국 고사 인용. 녹기금 소리를 비유하는 표현(2)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혼합된 표현 (2)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넷 소래 잇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 자신의 거문고 소리가 뻘어남을 과히사며 동  
화자의 외롭고 적막한 심정 시에 이를 들어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함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구비구비 쓴쳐서라.  
음성상징어 (의태어)

**전** 거문고를 타며 달래는 외로움과 한 ->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미화법>

<현대어 풀이>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하리?

청사초롱 돌려놓고 푸른빛 거문고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에 잠겨 연주하니,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함께 들리는 듯,

(묘앞에 세우는) 망주석 위에 천 년 만에 돌아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아름다운 손으로 연주하는 솜씨에는 옛 가락이 아직 남아 있지만,

연꽃 무늬 휘장을 친 방이 고요하고 쓸쓸하니 누구 귀에 들릴 것인가?

마음속이 (괴로움으로) 뒤틀리어 굵이굵이 끊어졌도다.

출하리 잠을 드러 쑤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스 뉘과 풀 속에 우는 츄생,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현실적 절망에 대한 심리적 보상의 공간  
 △ 잠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 및  
 대상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서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디,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쓰쳤는고.>  
 견우직녀조차도 1년에 한번씩은 만나지만,  
 자신들은 그러지 못함을 한탄 ->임에 대한 원망

난간(欄干)의 비껴 서서 님 가신 덕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쳐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고딧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툰 사람 수업다 흐려니와,

<박명(薄命)흔 홍안(紅顏)이야 날 가뜰니 쏘 이실가.  
 자신의 처지가 불운한 운세에서 온 것을 한탄함

화자의 태도를 집약적으로 제시함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 동 말 동 흐여라.>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

(자신의 운명이 기구하다고 여기는 운명론적 태도+임에 대한 원망 -> 이중적 태도)

TIP! 홍안=일반적으로 여성을 지칭하는 말 -> 화자가 여성

## 결 입을 기다리는 마음과 기구한 운명에 대한 한탄

### <현대어 풀이>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서나 (임을) 보려 하니,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가,  
 무슨 일로 원수가 되어 잠조차 깨우는가?  
 하늘의 견우직녀는 은하수에 막혔어도,  
 칠월 칠석 일 년에 한 번씩은 빼먹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데,  
 우리 임 가신 후에는 무슨 건너지 못할 강이 가렸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겼는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서럽다.  
 세상의 서러운 사람 수업이 많다고 하지만,  
 기구한 운명의 여자가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임의 탓으로 살 듯 말 듯하구나.

### 작품정리

1. 갈래 : 가사(규방가사, 내방가사)
2. 주제 : 규방부인의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 봉건제도 하에서의 부녀자의 한
3. 화자 : 독수공방하며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4. 상황 : 가부장적 유교 질서 속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독수공방하는 상황
5. 정서 : 원망, 그리움, 슬픔
6. 특징
  - 1)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함
  - 2)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등의 표현을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 3) 다양한 대상에 화자의 심정을 투영함
  - 4) 기-승-전-결의 기본 구성 방식을 취함
  - 5) 의문의 형식으로 입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 6)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냄

\*문학사적 의미 : 현전하는 최고의 내방가사 (최고는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임)

### 출제 POINT 1 순우리말의 적절한 사용

-> 감정과 생각의 미세한 어감차이까지 반영하여 표현하는 데에 한자어보다 순우리말이 적합하기 때문에, 순우리말을 이요해 고조된 정서를 정서적,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 출제 POINT 2 당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추측

->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봉건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을 수 밖에 없는 절망적 현실을 추측할 수 있음

### 출제 POINT 3 조선시대의 일반적 여성상과 허난설헌 사이의 비교

<p>&lt;조선 일반적 여성&gt; 남존여비, 여필종부 -&gt; 남성들에게 귀속되는 삶</p>	<p>&lt;허난설헌&gt; 남성들에게 종속x -&gt;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자의식을 지니며, 자신의 한과 원망을 드러냄</p>
--	--

출제 POINT 4 속미인곡 속 화자와의 비교

	속미인곡	규원가
이별의 원인	자신	임
이별에 대한 대응과 반응	적극적	소극적

출제 POINT 5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

1. 여인들의 생활용어, 고유어, 참신한 표현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2. 남녀 간의 애정, 이별의 한과 슬픔, 시집살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 등을 다룸